

# “공직자 종교중립이 국민 종교자유 보장”

## 문광부 종교차별 예방 워크숍 6월 20~21일 열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6월 20~21일 부산 대명리조트에서 중앙부처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종교차별예방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종교차별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중무담당 공무원들을 포함해 106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유성민 한신대 교수의 '종교를 알아야 종교차별이 예방된다' 주제 특강에 이어 성혜영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조계종 교육부장 법인 스님, 산위의마을 대표 박기호 신부, 한신대 명예교수 김경재 목사, 조현 한겨레 종교담당 기자가 참여한 '상생과 화합을 위한 종교간 대화'가 진행됐다.

유성민 교수는 특강에서 "공직자의 실수나 부주의,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해 발생한 종교차별과 종교편향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정부 불신을 야기시킨다"며

"공직업무에서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종교성이 결부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적극적으로 다양한 종교를 배워 편향된 행동을 하지 않는 소양을 갖춰야 한다"며 "공직자의 종교중립은 국민의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기초"라고 강조했다.

### 106명 참가해 종교중립 중요성 관심 법인 스님 등 3대종교 대표도 참가

종교간의 대화에서 법인 스님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아서 안된다"며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종교를 넘어 사람과 사람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재 목사는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종교가 상생하고 존경하는 인간다운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6월 20일 대명 번산리조트에서 열린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워크숍'에는 조계종 교육부장 법인 스님 등 3대종교 대표들이 참여해 공무원들과 '종교간 대화'를 진행했다.

박기호 신부도 "정신세계를 이끌어갈 종교인들이 협력하고 노력하자"며 종교계의 관심도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21일 김제 금산사, 금산교회, 수유성당으로 이어

지는 '전북 아름다운 순례길'을 체험했다.

한편, 군산경찰서(서장 최중선)도 20일 한국종교교육학회 회장 김기중 원광대 교수를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찬불가 작곡도 수행방편이라던 스님”

## 범능 스님 다비식 6월 15일 불지사서 거행

노래하는 스님이자 민중가수를 알려준 범능 스님 다비식이 6월 15일 화순 불지사에서 봉행됐다. (오른쪽 사진)

범능 스님은 음반 4장과 명상음반을 발표하는 등 생전 남다른 음악열정을 쏟아왔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영결식에는 범능 스님의 두 동생 선용·선관 스님과 동문수학한 도반스님들과 지역 음악인 700여 명이 참여했다.

영결식은 영결범요, 헌향·헌다, 행장소개, 범능 스님 육성 노래, 조사, 추모의 노래, 문도대표 인사, 운구, 다비 순으로 진행됐다.

범능 스님과 함께 포교 활동을 전개했던 나주 원각사 원광 스님은 "스님은 자신의 노래처럼 항상 많은 수행자로 살려고 노력했다"며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부단히 애쓰며 살았다"고 스님을 추모했다.

마지막 음반을 함께 만든 박문옥 씨는 "30년 전 기타 하나로 '의연한 산하'를 함께 작곡했던 때가 첫 만남"이라며 "스



님은 항상 음악도 수행의 방편이라며 불교음악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욕을 보이셨다"고 회상했다.

조사에 이어 범능 스님이 창단한 부루나합창단과 증심사·길상사 연합합창단의 '무초의 노래'가 이어졌다. 다비식 후 습된 스님의 유골은 스님의 수행과 음악활동이 진행됐던 불지사 곳곳에 뿌려졌다.

한편 범능스님은 6월 1일 광주지역 불교활동가들과 회의를 진행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졌다. 12일 세담 53세, 법랍 20세로 입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정성다한 통일쌀이 통일 이끈다

## 화엄사·구례 농민, 6월 18일 북한 돕기 쌀 모내기 실시



비가 오는 와중에도 화엄사 스님들이 우의를 입고 모심기에 열중하고 있다.

"한들 한들 정성을 다한 이 쌀이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 또 남북통일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평화적 남북관계를 위한 희망의 불씨를 전했던 통일쌀 경작이 시작됐다.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내린 6월 18일 전남 구례군 용방면 신도리의 들녘에서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와 구례군농민회(회장 김종욱), 여성농민회, 기자자동차노동조합 광주지회, 구례군 장애인복지관(관장 우석, 화엄사 총무) 등 100여 명이 통일쌀 공동경작 모내기를 진행했다.

구례군 통일쌀은 지난 2007년부터 화엄사와 노동자와 농민이 함께 만든 '통일경작단'에서 생산해왔다. 통일경작단은 화엄사 소유의 2만평에서 통일쌀을 경작해 조계종 민족공동체지원본부를 통해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왔다. 지금까지

보낸 통일쌀은 2007년 5000만 원, 2008년 3000만 원 상당에 달한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남북 관계 단절로 직접 지원이 끊겼다. 이날 공동경작 모내기는 최근 남북대화 가능성에 통일쌀 지원을 위해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비를 맞으며 직접 모판을 옮기고 모종을 띄워놓고 손 모내기를 진행하는 등 정성을 다했다. 특히 화엄사 사중 스님 20여 명이 모내기에 참여해 선농일치의 정신을 실현했다.

화엄사 총무 우석 스님은 "쌀이 전해져서 동포들을 위한 작은 행복의 씨앗이 되었으면 한다"며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행복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지역 곳곳에 펼쳐진 자비의 손길

## 증심사 수좌 스님 치료지원, 불자체육인 장학금 등 다채



조계종 체육인복지연합회는 6월 19일 광주 증심사에서 불자체육인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병마에 시달리는 스님들을 위한 자비의 손길이 감동을 전한다. 광주 증심사(주지 영관)는 6월 18일 화순 전남대병원을 찾아 백혈병을 앓고 있는 시연 스님에게 치료비를 전달했다.

송광사에서 출가한 시연 스님은 선원에서 정진 중 백혈병이 발병했다. 선원 수좌 스님의 딱한 소식을 들은 증심사 신도들은 모금행사를 열어 치료비를 모았으며 증심사 주지 영관 스님도 후원금을 보냈다. 치료비는 문도 증현 스님을 통해 시연 스님에게 전해졌다. 지역 유망 체육 꿈나무들의 꿈을 더욱 키울 장학금도 전달됐다.

광주전남 조계종 체육인복지연합회는 6월 19일 광주 증심사에서 불자체육인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불자체육인은 양한솔(전남공고, 펜싱), 이영훈(전남고, 럭비),

김기환(광주공업고, 씨름), 최다희(정광고, 역도) 선수로 각각 300만원이 전달됐다.

연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체육 활동을 하는 불자들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체육 발전과 지역포교에 기여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개인의 명예와 함께 큰 사명과 자부심을 갖고 운동에 전념에 달라"고 당부했다.

전달식에는 연광 스님, 지용현 광주전남불교신도회장, 김홍식 광주광역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6월 14일 화순전남대병원에 의료용 마스크 100박스와 환우 아이들 간식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미쓰A 수지의 모친 정현숙 씨가 참석했다. 정 씨는 현재 광주생명나눔지역본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화엄사 어린이 영어법회 창립

"I take refuge in the Buddha, ~Dharma, ~Sangha"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는 6월 16일 경내 화엄사에서 '화엄사 선제 어린이 영어법회'를 창립하고 첫 법회를 진행했다.

템플스테이 연수국장 종호 스님을 지도법사로 마련된 이날 법회에는 20여 어린이들이 참석해 삼귀의례 의식 등을 진행했다.

종호 스님은 어린이 영어법회 창립 배경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영어를 통해 불교를 알고 학력과 불심을 모두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법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참선 생활화하는 '원심선회' 눈길

##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에서 2010년부터 3년째 진행

전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는 전주의 대표적 전법도량이지만 이곳에 시민선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보현사 시민선방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원심선회가 열린다.

2010년 당시 보현사 주지 일원 스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원심선회는 국선도 요가, 간화선 입문 강의, 참선, 경행 등이 진행된다. 평일에 열리는 관계로 많은 이들이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25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3년째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원심선회가 주로 진행하는 것은 화두

참선이다. 회원 각자의 근기에 맞게 호흡법과 수식관, 염불선을 병행하며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이 무엇고' 등의 화두를 들고 있다. 또 <선가귀감>과 <간화선 입문> 등 교재를 통한 교육도 진행 중이다.

전북불교회관 원광 보통 스님은 "수행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조심자들을 위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명상수행도 함께 접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심선회는 여름 휴가기간 특별 운영정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안마 돕기

##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맑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 신부 출가의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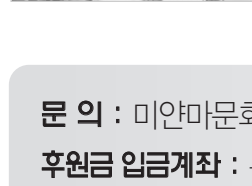
###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피아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명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